

전자저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User Services for Electronic Journals in University Libraries.

이란주(Lan-Ju Lee)*, 황신혜(Shin-Hye Hwang)**

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전자저널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였으며, 사례조사로서 국내외 6개 대학도서관의 웹사이트를 접근, 목록, 이용자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전자저널의 선정 및 구독 현황을 비롯하여 크게 8개 항목으로 총 4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효과적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8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user services of electronic journals in university libraries. In order to do that literature reviews, case studies, and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The case studies involved six university libraries, which were analyzed based on accessing, cataloging and user services.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forty-seven items in eight parts, including selection and subscription of electronic journals were distributed to the librarians who were in charge of managing electronic journals. Following an analysis on the survey, guidelines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user services of electronic journals were suggested.

키워드 : 전자저널, 전자저널 관리, 이용자서비스, 대학도서관

keywords : electronic journals, managing electronic journals, user services, university libraries

* 동덕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정보학부 문헌정보전공 부교수(lanju@dongduk.ac.kr)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대학원 석사과정

■ 논문 접수일 : 2003. 5. 21

■ 게재 확정일 : 2003. 6. 4

1 서 론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료를 장서의 일부분으로 입수하고 소유하기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로 정보의 양이 급증하게 되어 도서관 자원의 소유에 대한 패러다임은 쇠락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술과 정보환경의 발달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와 그 이용자들을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쇄자료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기반 전자자원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연구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자저널에 대한 요구와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국내외의 도서관 및 각종 연구기관은 전자형태로 출판된 학술지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저널은 그 유형과 가격구조가 다양하고 서비스와 이용방법이 인쇄저널과 상이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다른 정보원들과 구별되는 선정과 구독을 포함하여 접근제공 등 관리상의 문제를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저널의 장점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연구정보원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각 도서관에서는 체계적인 전자저널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울러 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을 효과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전자저널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때문에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으로 최신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술지가 다른 어느 기관에서 보다 그 제공과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술커뮤니케이션에서 학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이런 이유로 인하여 대학도서관에서는 학문영역별로 핵심 학술지를 구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대학도서관은 다른 소규모의 연구 도서관과 비교하여 비교적 예산의 규모가 크고, 관리시스템 및 정책이 체계화되어 있다. 즉, 대학도서관은 다른 정보기관과 비교하여 학술지의 필요성과 요구가 높으며 이에 따라 비교적 많은 예산을 학술지 구독에 소비하고 있다. 때문에 대학도서관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 중 현재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전자저널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는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전자저널의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자저널의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아울러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실제 관리와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주제 분야의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사례연구로서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웹사이트를 전자저널의 접근, 목록, 이용자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선행연구

전자저널에 관한 연구는 전자 출판 및 전자저널에 관한 연구, 선정 및 구독에 관한 연구, 접근 및 목록에 관한 연구,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이용자 서비스에 관한 연구 등이 다양하게 수행되어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각각의 주제별로 그 현황과 개념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윤희운(2003)은 대다수 도서관이 팩키지형 전자잡지를 수용함으로써 선택 및 수서, 접근, 아카이빙 등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숙현(2003)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전자저널이 전자출판물 중 현재 도서관에서 가장 선

호하고 있는 자료라고 언급하였고, 외국의 전자저널 서비스 형태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이하범(2003)은 국내에서는 전자저널이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통계나 서비스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나 저널을 평가하기 위한 합의나 선결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이에 메릴랜드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응용하여 구독 중인 저널과 구독 예정인 저널에 대한 전자저널 평가방법을 조사하였다.

전자 출판 및 전자저널에 관한 연구로 조현주와 안계성(2000)은 E-book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정준민(2001)은 인터넷과 웹의 특성을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해석하여 전자저널의 새로운 모델을 추론하였다.

Nisonger(1996)는 전자 저널의 선정, 예산, 정책 결정, 보존 등 전자저널에 관한 장서관리 문제를 분석하였고, 배금표(2000)는 전자저널을 수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혜련(2000)은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을 구독, 서비스하는데 있어서의 관리방안으로 전자저널의 장서개발 원칙과 접근 제공 방안에 관하여 제안하였고, 신은자(2001b)는 도서관에서의 바람직한 수서 정책을 제안하고 균형 있는 장서개발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격모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김현주(2001)는 실제 대학도서관들이 전자잡지를 어떻게 선택하고 구

입하여 보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등 전자저널의 선정 및 구독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접근 및 목록 측면에서 김정현(1998)과 이창수와 심상순(2000)은 전자저널의 목록규칙에 관련된 조사를 하였으며, 신은자(2000)는 전자저널의 서지와 원문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통합인터페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국내 대학도서관의 전자저널 관리와 인터페이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통합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Rich(2002)는 미국의 114개 대학도서관의 웹사이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자저널로의 접근을 제공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평가한 후, 네 가지의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편 신은자(2001a)는 전자저널 아카이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과 국내의 전자저널 아카이브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전자저널 아카이브 정책추진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원태(2001)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련된 특성, 현황, 구성요소, 전망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이소연(2002)은 최근 ISO 표준으로 인증 발표된 OASIS 참조모형이 정의하고 있는 주요 모형들과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 모형의 개발에 참여한 주요 기관 및 프로젝트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용자 서비스 측면에서는 정동열(1999)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자학술지

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전자학술지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고, 손정표와 심상순(2001)은 대학도서관들이 이용통계에 근거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자저널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3 사례조사

현재 국내외의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서관의 장서규모가 비교적 크고 제공 서비스가 우수한 국내의 6개 대학도서관 웹사이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접근제공과 이용자서비스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도서관;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도서관, Harvard University 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3개의 국외 대학도서관의 경우, 전자저널의 접근이 종합목록과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목록은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을 함께 작성(Single-Record approach : 통합목록 방법)하거나 별도의 레코드로 작성(Separate-Record approach : 분리목록 방법)되고 있으며, 인쇄저널이나 전자저널이 종합목록 상에서 통합되어 검색되도록 하고 있다. 웹 페이지 상

에서 전자저널의 간략한 소개 및 이용법이 제공되고 있으며, 참고질의 서비스나 신착저널 소개 등이 제공되었다.

국내 3개의 대학도서관의 경우,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만이 종합목록과 게이트웨이를 통한 접근을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목록은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을 제외하고 다른 두 도서관은 전자저널과 인쇄저널이 통합목록(Single-Record)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웹 페이지 상에서 전자저널에 관한 소개와 간략한 이용방법을 제공하였으며, 참고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지사항이나 게시판을 통하여 새로운 저널의 소개나 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4 설문조사방법

4.1 설문조사설계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의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무자들이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하여 갖고 있는 의견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작성은 전자저널의 관리와 관련된 연구와 대학도서관에서 홍보 및 교육에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와 선행연구들이 다루었던 전자저널 관리 및 서비스 상의 문제점과 개념적 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동덕여자대학교 전자정보실의 전자저널 담당 사서에

게 프리테스트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은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저널 구독 및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문항,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던 다양한 전자저널 관리상의 문제점과 최근 이슈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이용자 서비스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과 관련된 문항 등 8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2문항(4.3%), 전자저널의 구독 및 이용 현황 8문항(17%), 담당 부서 및 직원 현황 5문항(10.6%), 전자저널의 선정 및 구독 현황 5문항(10.6%), 접근 및 목록 현황 8문항(17%), 아카이브 현황 3문항(6.4%), 그리고 홍보 및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현황 13문항(27.6%)과 마지막으로 협력과 관리 및 서비스 상의 문제점에 관한 3개의 문항(6.4%) 총 4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2 설문조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내에서 전자저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자저널은 다른 정보원과는 관리와 그 이용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서들보다는 전자저널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응답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자저널을 전담하고 있는 사서가 없거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저널

관리나 서비스 중 어떤 한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관련성이 높은 실무자들을 우선으로 응답을 얻고자 하였다.

소수의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보다는 어느 정도의 구독 종수를 가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구독 종수가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의 요구가 보다 많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전자저널을 1000종 이상 구독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전자저널과는 관계없이 인쇄저널을 1000종 이상 구독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도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인쇄저널을 1000종 이상 구독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이라면 현재 전자저널을 구독하지 않거나 소수만을 구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구독을 시작하거나 구독 종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대학도서관에서는 전자저널을 관리와 이용자서비스를 조만 간에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대학도서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전국의 사립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통계 2002』에 수록된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도서관 중 국내의 인쇄저널이나 전자저널 중 어느 것이든지 1000종 이상 구독하고 있는 4년제 사립 대학도서관 91개 중 한 대학 당 한 개의 도서

관만을 설문 대상자로 삼아 총 77개교의 대학도서관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4.3 배포 및 회수

설문지는 2003년 4월 2일 우편으로 77부를 각 대학도서관에 발송하여 3주간 회수하였다. 각 대학도서관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저널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저널 담당자나 부서에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수서 담당 사서에게 설문지를 발송한 후, 전자저널 담당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 후 3주 동안 응답하지 않은 도서관에는 전화나 전자메일을 통하여 재차 설문지에 응답해줄 것을 요청하여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국의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77개에 전자저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49.4%에 해당하는 3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8.9%로 가장 많았고, 경상도지역 23.7%, 충청도 지역 21%, 경기도 지역 13.2%, 전라도 지역 7.9%, 강원도 지역 5.3% 순으로 나타나 서울지역과 경상도지역의 도서관이 전체 응답 도서관 중 절반 이상인 5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5.1 설문지 분석

5.1.1 일반적인 사항

1) 응답자의 소속 부서와 업무 경력

38개 대학도서관의 응답자의 소속 부서는 18개관(47.4%)으로 정기간행물실이 가장 많았으며, 수서실이 10개관(26.3%), 전자정보실의 사서는 7개관(18.4%)이었으며 그밖에 열람실과 정리실의 사서들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다. 설문에 응답해 준 사서들 중 13개관(34.2%)의 사서들이 1년-3년 정도 현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10개관(26.3%)의 사서들은 7년 이상, 9개관(23.7%) 사서가 3년-5년 정도 현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서와 5년-7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서들이 각각 3개관(7.9%)이었다.

5.1.2 구독 및 이용 현황

1) 전자저널 구독 시작시기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구독 시작시기를 조사하였다. 응답한 대학도서관 중 1개관(2.6%)이 1997년에 구독을 시작하였고,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10개관(26.3%)이 전자저널을 구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응답 도서관 중 가장 많은 14개관(36.8%)이 전자저널의 구독을 시작하였고 2001년과 2002년부터 전자저널을 구독한 도서관은 각각 2곳(5.3%)으로 나타났다.

2) 전자저널 구독 종 수

전자저널 구독을 시작하였을 때와 현재의 구독 종수를 비교해 보았다. 각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 구독을 시작하였을 때, 13개관(34.2%)에서 400종 이상의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있었으며, 11개관(28.9%)이 100종 이상 200종 미만의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있었다. 그리고 100종 미만의 전자저널을 구독했던 도서관은 5개관(13.1%)이 있었다. 전자저널의 구독종수는 100종 이상 200종 미만과 400종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독종수의 차이는 대학도서관마다 전자저널 구독을 시작한 시기가 다른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전자저널의 구독을 시작한 도서관에서의 구독종수와 2000년 이후 전자저널의 구독을 시작한 도서관에서의 구독종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학문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새로운 전자저널이 등장했을 것이며, 또한 인쇄저널이 전자저널로 출판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전자저널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에서는 점점 전자저널의 구독종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는 28개관(73.7%)에서 2000종 이상의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있으며 4개관(10.5%)에서 500종 미만, 3개관(7.9%)에서 1500종 이상 2000종 미만의 전자저널을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자저널의 구독 비율

구독하고 있는 전체 학술지 중 전자저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학술지에서 전자저널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38개 대학도서관 중 26.3%에 해당하는 10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체 학술지 중 전자저널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개관(23.7%)에서는 60%이상 80%미만, 7개관(18.4%)에서는 20%이상 40%미만을 학술지 중 전자저널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술지 중 40%이상 60%미만, 20%미만의 전자저널이 구독되고 있는 도서관은 각각 5개관(13.1%)으로 조사되었으며, 2개(5.3%)의 대학도서관에서는 본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다.

4) 전자저널과 인쇄저널의 이용비교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 중 전자저널과 인쇄저널의 이용률을 조사해 보았다. 38개의 대학도서관 중 20개관(52.6%)에서는 전자저널이 인쇄저널의 이용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4개관(36.8%)에서는 인쇄저널이 전자저널보다 아직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서관이 3개관(7.9%),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1곳 있었다.

5) 주제분야

전자저널 중 이용률이 높은 주제분야를

조사해 보았다. 19개관(50%)에서 기술과학 분야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9개관(23.7%)에서는 순수과학 분야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그밖에도 5개관(13.2%)에서는 인문과학 분야가, 4개관(10.5%)에서는 사회과학 분야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무응답도 1개관(2.6%)이 있었다.

5.1.3 직원 현황

1) 전자저널 담당 부서

38개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 담당 부서를 조사하였다.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는 정기간행물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수서실과 전자정보실이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도 열람실 및 기타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가 하나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14개의 도서관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24개의 도서관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나누어 실시하고 있었다.

2) 전자저널 전담 사서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전담 사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체 38개의 도서관 중 21개관(55.3%)의 사서들이 전담 사서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6개관(42.1%)의 사서들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전자저널

전담 사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담 사서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1곳(2.6%) 있었다.

한편, 18.4%에 해당하는 7개의 도서관을 제외한 78.9%의 30개의 도서관에는 전자저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서가 있었고 응답하지 않은 도서관이 한 곳 있었다. 7개관(18.4%)에서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할 사서가 부재한 이유는 업무수행에 적절한 사서의 부족, 예산의 부족, 과중한 다른 업무가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5.1.4 선정 및 구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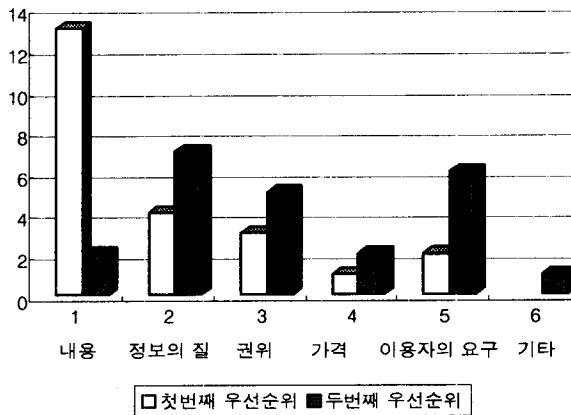
1) 선정기준

전자저널의 선정기준은 23개관(60.5%)에서 마련해 두고 있었으며 나머지 15개관(39.5%)에서는 아직 선정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23개의 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선정 시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은 저널의 내용(13개관-56.5%)으로 나타났고, 정보의 질(4개관-17.4%), 출판사나 편집자 등의 권위(3개관-13%), 이용자의 요구(2개관-8.7%)와 가격(1개관-4.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정보의 질(7개관-30.4%), 이용자의 요구(6개관-26%), 권위(5개관-21.7%), 그리고 가격과 내용 등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 구독방법

38개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있었다. 이 중 컨소시엄을 통한 구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34개관-89.5%), 이와 병행하여 대행사를 통한 구독(15개관-39.5%), 패키지 구독(12개관-31.6%),



〈표 1〉 전자저널 선정기준

개별 구독(4개관-10.5%) 순으로 구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자저널 구독상의 문제점

전자저널의 구독 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18개관(47.4%)에서 전자저널의 구독 시 예산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었으며 9개관(23.7%)에서는 이용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5개관(13.2%)에서는 선정도구의 부재가 전자저널 구독 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였으며, 기술적인 지식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도서관도 있었다.

4) 장서개발정책

38개의 대학도서관 중 7.9%에 해당하는 3개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전자저널을 위한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전자저널의 선정 및 구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5.1.5 접근 및 목록 현황

1) 접근제공방법

전자저널로의 접근 방법 및 목록 작성 현황을 조사하였다. 한 개의 도서관에서 한 가지의 방법만을 사용하여 전자저널로

의 접근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전자저널로의 접근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전자저널과 인쇄저널을 통합목록(Single-Record)으로 작성하는 도서관은 11개관(28.9%)이었고, 통합목록(Single-Record)으로 작성하는 이유로는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사서들이 관리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이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되어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위의 11개의 도서관에서는 인쇄저널의 구독이 중지되었을 경우, 10개관(90.9%)에서 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다.

전자저널과 인쇄저널을 각각의 분리목록(Separate-Record)으로 작성하고 있는 도서관은 38개 도서관 중 17개관(44.7%)이었으며, 분리목록(Separate-Record)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통합목록(Single-Record)으로 작성할 경우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41.2%), 인력의 부족하기 때문(35.3%), 예산의 부족하기 때문(23.5%) 순으로 나타났다. 분리목록(Separate-Record)은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의 목록이 각기 따로 작성되므로 전자형으로도 이용 가능한 인쇄저널을 검색할 경우, 전자저널로의 안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저널로의 안내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7개관(41.2%)이었으며, 5개관(29.4%)에

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전자저널로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다.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전자저널의 URL을 제공하는 방법이고, 단지 전자저널의 존재만을 알려주거나 전자저널로의 hotlink를 제공하는 방법 순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5개관(29.4%)에서는 전자저널로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전자저널의 접근을 위한 게이트웨이는 전체 38개 도서관 중 92.1%에 해당하는 35개관에서 제공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전자저널로의 접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명의 알파벳순 리스트를 통해 접근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22개관(57.9%)이었고, 검색창을 두어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17개관(44.7%)이었다. 그리고 각 패키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패키지명 리스트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15개관(39.5%)이었고, 기타 전자저널이나 패키지에 관한 정보나 이용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이 14개관(36.8%)이었고 13개관(34.2%)에서는 주제명을 제공하여 주제별로 전자저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게이트웨이에서는 알파벳순 리스트를 통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검색기능, 패키지명 접근, 기타 정보, 그리고 주제명으로의 접근 방법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국가과학기술 전자도서관)의 "Our Library

Journals"에서는 소속 대학교의 인쇄저널 및 전자저널을 대상으로 한 검색결과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소속기관과 IP를 체크하여 소속기관의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에 대한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협력기관 이용자에 한하여 접근이 제공된다. NDSL에서 이용자는 해당 출판사로부터 이용자의 소속기관이 라이선스를 체결한 저널의 원문만을 볼 수 있으며,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에 참가한 기관의 소속 이용자가 등록된 IP그룹 이외의 지역에서도 전자저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emote Access 서비스가 2003년 4월 21일부터 제공되었다. 전국의 186개의 대학도서관에서 NDSL과 협력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NDSL에서 제공하는 검색과 브라우징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저널로의 접근을 할 수 있다. 브라우징 기능에서는 알파벳, 주제별, 그리고 출판사별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결과 38개관 중 15개관(39.5%)만이 NDSL을 통하여 전자저널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표 2).

2) 편목에 대한 인식

편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38개의 대학도서관 응답자 중 68.4%에 해당하는 26명의 사서들은 전자저널을 위한 편목 작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6.3%에 해당하는 10명의 사서는 전자저널을 위한

〈표 2〉 전자저널로의 접근제공 방법

OPAC을 통한 접근제공	통합목록(Single-Record)	11개관(28.9%)
	분리목록(Separate-Record)	17개관(44.7%)
게이트웨이를 통한 접근제공	각 도서관의 게이트웨이	35개관(92.1%)
	NDSL	15개관(39.5%)

편목 작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명(5.3%)의 사서는 본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서들은 전자저널의 편목을 작성할 경우, 17개관(44.7%)의 사서들이 그 수준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인쇄저널과 비슷한 수준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개관(23.7%), 인쇄저널보다 간략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서들은 7명(18.4%), 그리고 3개관의 사서(7.9%)는 인쇄저널보다 자세하게 편목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개관(5.3%)의 사서들은 이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다.

5.1.6 아카이브 현황

각 대학의 전자저널 보존에 관련하여 전자저널의 구독 중단 후 과월호에 대한 접근문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1개관(28.9%)에서 아카이브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대학도서관에서는 아직까지 전자저널의 아카이브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아카이브 방법으로는 CD-ROM을 이용한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학 내의 서버를 이용하는 도서관도 3개관이 있었다. 21개관(55.3%)에서 아카이브를 실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로는 예산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기술의 부족과 인력부족, 아카이브의 필요성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출판사에서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도서관도 있었다.

5.1.7 이용자 서비스 현황

1) 홍보

전자저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서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 도서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

38개의 대학도서관 중 34개관(89.5%)의 사서들은 홍보의 필요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개관(7.9%)의 사서들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개관(2.6%)의 사서는 그저 그렇다라고 답해 대부분의 사서들은 홍보의 필요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전자저널과 관련된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은 1개관으로 홍보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나머지 37개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다.

전자저널의 홍보방법으로는 웹을 통한 홍보는 32개관(74.2%), 교내 게시판을 통한 방법은 20개관(52.6%), 별도의 강좌를 통한 홍보는 16개관(42.1%), 인쇄물의 배포는 15개관(39.5%)에서 실시되고 있었으며 그밖에도 영상매체를 통한 방법이나 교내 인트라넷의 홍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전자저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홍보 이후,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응답한 도서관이 34개관(89.5%)으로 홍보가 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저널의 홍보를 실시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7개관(44.7%)에서 웹, 인쇄물, 교내 게시판, 강좌, 그리고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방법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13개관(34.2%)에서는 강좌를 통한 홍보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5개관(13.2%)에서는 웹을 통합 홍보방법, 2개관(5.3%)에서는 교내의 게시판을 통한 홍보방법을 꼽았다. 그밖에 인트라넷의 홍보메일을 통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라고 응답한 도서관도 있었다.

2) 이용자교육

전자저널에 관한 이용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전자저널 관련 이용자교육으로 전자저널 및 학술 DB 검색방법은 전체 도서관의 36개관(94.7%), 전자저널 및 학술 DB 소개는

31개관(81.6%), 그리고 컴퓨터 관련 사용법은 6개관(15.9%)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이용자 교육의 대상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35개관(92.1%),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33개관(86.8%),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20개관(52.6%),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은 11개관(28.9%)으로 나타났다.

전자저널의 이용자 교육의 방법을 조사하였다. 21개관(55.3%)에서는 그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각각 15개관(39.5%)에서 학과별교육과 인쇄물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12개관(31.6%)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8개관(21%)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정보검색특강이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도서관도 있었으며, 직접 개별 방문하여 이용자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전자저널과 관련된 정기 이용자교육의 주기를 조사하였다. 18개관(47.4%)에서 년 2-3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1개관(28.9%)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년 1회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년 7회 이상 이용자교육을 실시하는 도서관은 5개관(13.2%)이었고, 년 4-5회 이용자교육을 실시하는 도서관은 2개관(5.3%), 5-6회 실시하는 도서관은 1개관(2.6%)이었다. 이용자 교육 후, 전자저널의 이용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도서관

이 38개 도서관 중 36개관(94.7%)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이용자 교육이 전자저널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직원교육

전자저널의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에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관의 직원이 전자저널에 관한 지식과 이용방법 등을 익히고 있어야 한다. 38개 도서관중 18개관(47.4%)에서는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고, 19개관(50%)에서는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있었으며 1개관은 응답하지 않았다. 도서관 직원교육은 주로 그룹교육(50%)과 워크숍(38.8%)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개별교육을 통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5.1.8 기타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하여 타 대학도서관과의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38개 도서관 중 10개관(26.3%)만이 협력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 선정 및 구독 업무를 협력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었으며, 접근 및 목록 작성 업무, 아카이브, 홍보 및 순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마지막으로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 상의 가장 큰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13개관(34.2%)에서는 예산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9개관(23.7%)에서는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한 이용자 서비스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6개관(15.8%)에서는 선정 및 구독을 포함한 수집의 문제를 꼽았으며, 각각 5개관(13.2%)에서는 접근 및 목록의 문제, 아카이브의 문제가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 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였다.

5.2 분석 결과 및 논의

대학도서관의 전자저널 관리 및 서비스 현황에 관한 설문지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음에서 논의하였다.

1) 구 독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서비스를 시작한 시기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이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전자저널의 구독을 시작하여 서비스 제공기간은 3-5년으로 나타났다. 김혜련(2000)의 연구에서도 1998-1999년 전자저널의 구독을 시작한 대학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00년 이후 전자저널 구독을 시작하는 도서관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미 전자저널의 구독 시작 초기단계는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설문대상의 대학도서관 중 73.7%에 해당하는 도서관에서

2000종 이상의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있으며 구독방법은 주로 컨소시엄을 통한 구독이나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구독에 의존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독해야 할 전자저널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곳도 있다. 때문에 국내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컨소시엄이나 패키지 구독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다종의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관리 및 서비스해야 할 저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서들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컨소시엄을 통하여 그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패키지로 전자저널을 구독하는 경우, 필요치 않는 저널도 함께 구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전자저널의 구독 시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 행태 그리고 가격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이 용

학술지 중 전자저널의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이 20개관(52.6%)으로 약간 높은 결과가 나왔지만, 인쇄저널의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 또한 14개관(36.8%)이나 되어 현재는 전자저널과 인쇄저널의 과도기적 시점으로 인쇄저널에서 전자저널로 학술지의 비중이 옮겨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기존의 인쇄저널과 새롭게 구독하는 전자저널 사이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미래의 요구까지 고려한 관리 및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전자저널의 이용이 가장 높은 주제 분야는 최신성이 높은 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기술과학과 순수과학 분야로 나타났다.

3) 담당 부서 및 전담 사서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는 주로 정기간행물실, 전자정보실, 수서실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2000년 조사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실과 수서실에서 주로 전자저널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전자정보실과 전산실 등의 부서에서 전자저널의 관리를 담당하였다(김혜련 2000). 그리고 2001년의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기간행물실과 전자정보실에서 전자저널을 담당하고 있었다(김현주 2001). 전자저널이 학술지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기간행물실에서 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구독의 특성상 수서실에서 담당하거나 전자적 정보원의 특징으로 전자정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몇 년 전과 비교하여 담당 부서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전자저널 전담 사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실제 전담 사서가 있는 도서관이 30개관(78.9%)으로 나타났다. 2000년 조사에서는 64.4%의 도서관에서 전담 사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련 2000),

2001년 대구지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0%의 도서관에서 전담 사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2001). 몇 년 사이 전자저널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의 필요성도 증가하여 그 비율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자저널의 전담 사서를 두지 못하는 이유로는 적절한 사서의 부족, 예산의 부족, 과중한 다른 업무가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4) 선정기준과 정책

선정기준을 갖고 있는 도서관은 38개 대학도서관 중 60.5%에 해당하는 23개관이었고, 가장 우선 시하는 선정 기준은 전자저널의 내용(56.5%), 정보의 질(17.4%), 출판사나 편집자 등의 권위(13%), 이용자의 요구(8.7%)와 가격(4.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정보의 질(30.4%), 이용자의 요구(26%), 권위(21.7%), 그리고 가격과 내용 등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저널의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전자저널의 내용이며 전자저널의 내용을 고려한 후 정보의 질, 이용자의 요구, 출판사나 편집자의 권위와 명성 등의 질적인 측면이라고 제시한 Hall(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자저널은 인쇄저널의 선정 시 고려되었던 요소들을 바탕으로 전자형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한다(Nisonger 1997).

전자저널과 관련된 성문화된 정책이 있는 도서관은 7.9%에 불과했다. 김혜련(2000)의 연구에서도 전자저널과 관련된 성문화된 정책을 갖고 있는 대학은 8.9%에 불과하였고, 22.2%의 도서관이 계획단계에 있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한 도서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는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자저널이 대학도서관의 정보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그 종류와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저널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문화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접근과 목록

전자저널로의 접근 방법 및 목록 작성 현황은 통합목록(Single-Record)으로 작성하는 도서관은 11개관(28.9%)이었으며 분리목록(Separate-Record)으로 작성하고 있는 도서관은 38개 도서관 중 17개관(44.7%)이었으며 92.1%에 해당하는 35개관에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전자저널로의 접근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NDSL을 통하여 전자저널로의 접근도 가능하여 현재 대학도서관에서는 전자저널로의 다양

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게이트웨이를 통해 리스트로 접근하는 방법이 목록을 작성하여 OPAC을 통한 접근 방법보다 많이 제공되고 있어 보다 이용자들이 전자저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OPAC을 활용한 안내와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외의 대학도서관의 경우, 전자저널을 도서관의 다른 정보원과 함께 목록하여 OPAC에서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용자들이 모든 정보원에 대하여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아카이브

전자저널의 아카이브는 17개관(44.7%)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3개관을 제외하고는 보존용 CD-ROM을 통하여 아카이브를 실시하고 있었다. 한편, 대구지역의 5개의 대학도서관을 조사한 김현주(2001)의 연구에서는 전자저널에 대한 아카이브 방법으로 CD-ROM 등의 매체변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출판사나 대행사의 구독 계약 라이선스 조건에 따른 보존방안을 따르고 있었다.

21개관(55.3%)에서 아카이브를 실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예산의 부족을 꼽았으며, 기술의 부족과 인력부족, 필요성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아카

이브의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그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수준도 출판사의 제공 CD-ROM을 보존하는데 그쳐 대학 자체 내에서 또는 지역적인 협력을 통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 홍보 및 교육

전자저널 홍보의 필요성은 1개관을 제외하고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홍보 후 이용률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89.5%에 달하여 홍보가 전자저널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전의 정동열(1999)의 연구에서도 전자학술저널의 비 이용 요인으로 존재여부 즉 이용가능성을 모르는 경우가 7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자저널의 홍보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교육의 경우, 대학원생과 교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18개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용자교육과 비교하여 직원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 상의 문제점으로 직원들의 전자저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있었으며 직원교육의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있었다.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을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자저널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때문에

직원교육은 이용자교육에 선행되어 실시될 필요성이 있으며 직원교육 시에는 담당 업무별로 필요한 내용을 결정하고 누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려해야 한다.

8) 협 력

전자저널과 관련하여 도서관간의 협력은 크게 컨소시엄을 통하여 시도되고 있는 구독 및 라이선스 협력과 방대한 양의 전자저널 서지 레코드 작성을 위한 협력이 있다. 목록레코드를 공유하고 공동목록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목록기술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지역적인 공동 아카이브를 위한 협력과 상호대차와 같은 이용은 도서관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조사 대상 대학도서관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경우는 10개관(26.3%)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선정 및 구독 업무를 협력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었으며, 접근 및 목록 작성 업무, 아카이브, 이용자 서비스 순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기 타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 상의 문제점으로 컨소시엄 구독 시 개별 전자저널을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관에서 필요치 않은 저널까지 구독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 것과 현재의 요구와 미래에 요구를 동시에 맞춘 전자저널 선정

하는데 따르는 구독상의 문제 그리고 목록 작성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하다는 목록 작성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전자저널이 점차 고비용 상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아울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전자저널을 구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전자저널의 경우 다른 정보원과 비교하여 그리고 그 구독비용과 비교하여 이용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해야 하며, 전자저널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기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77개 사립 대학도서관의 전자저널 담당 사서들을 대상으로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49.4%이며, 지역별 회수율도 강원도(100%; 2/2)를 제외하고 41.6%에서 61.5%에 걸쳐 있다.

다음에서는 위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문제점과 의견에 주목하고 국내외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관리 및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의 선정과 구독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장서관리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문화된 정책은 업무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작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업무의 인수나 신규직원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서관리정책에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해주어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정기준과 업무의 절차를 명시해 준다. 특히 전자저널의 정책은 고정적이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둘째, 전자저널의 선정 및 구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담당사서는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 행태 그리고 전자저널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고 객관적이고 일관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정의 기준은 전자저널의 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후, 정보의 질과 이용자의 요구, 명성과 권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쇄저널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웹사이트의 안정성, 저널 원문의 포맷과 검색방법 등의 이용방법에 관련된 전자자원의 선정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 대학도서관은 전자저널과 인쇄저널의 과도기적 시점으로 인쇄저널에서 전자저널로 학술지의 비중이 옮겨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쇄저널과 새롭게 구독하는 전자저널 사이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미래의 요구까지 고려하여 구독해야 한다. 현재의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장래의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저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도서관 내에서 두 가지의 학술지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데 어려움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서관에서 인쇄저널을 구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의 서명이 다른 경우와 같이 전자저널만 이용가능 하거나 전자저널과 인쇄저널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목록(Separate-Record)을 작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을 동시에 구독하고 있다면, 통합목록(Single-Record)을 작성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형태의 정보원에 함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리스트와 검색창을 제공하여 주고 NDSL을 통한 접근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출판사가 제공하는 CD-ROM을 보존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렇게 아카이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예산의 부족, 기술의 부족과 인력부족, 필요성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적, 국가적인 협력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아카이브에 관한 인식과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여섯째, 전자저널에 대한 홍보는 꾸준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전자저널의 최신 정보이용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홍보를 실시할 때에는 웹, 인쇄물, 게시판 등을 병행하여 적절히 사용하고 현재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이용자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고가의 저널을 구독하고 있으면서도 이용률은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도서관들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적절한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전자저널의 존재와 유용성을 알리는 것이다.

일곱째, 이용자교육에 비하여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저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전자저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을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자저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원교육은 이용자교육에 선행되어 실시될 필요성이 있으며 직원교육 시에는 담당 업무별로 필요한 내용을 결정하고 누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려해야한다.

여덟째, 전자저널의 그 종류와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관리 및 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저널은 출판과 배포가 빠르고 저렴하며,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원거리에서도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전자저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저널을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 구독하고 장서관리정책에 따라 관리 및 서비스하여 이용자들에게 그 존재와 유용성을 알리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높지 않은 회수율(49.4%)로 대표성에 크게 손상을 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면담방법을 병행하는 등의 다른 연구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대상을 사립대학에만 국한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 대학도서관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국립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전문도서관

에 대한 연구 및 최종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김정현. 2000. 전자저널의 목록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1): 187-208.
- 김현주. 2001. 『대학도서관의 전자잡지 수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혜련. 2000.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저널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배금표. 2000. 전자잡지의 평가 요소. 『제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5-100.
- 손정표, 심상순. 2001. 전자저널의 이용평가에 관한 연구 : Y대 도서관의 IDEAL을 중심으로. 『한국 도서관. 정보학회지』, 32(4): 419-447.
- 신은자. 2000. 전자저널의 통합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7(2): 67-83.
- _____. 2001a. 전자저널의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3): 139-157.
- _____. 2001b. 전자저널 가격정책의 최근 동향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 61-75.
- 윤희윤. 2003. 디지털 장서관리의 패러독스 분석. 『한국비블리아 학술발표논문집』, 8: 7-20.
- 이소연. 2002. 디지털 아카이빙의 표준화와 OAIS 참조모형. 『정보관리연구』, 33(3): 45-68.
- 이숙현. 2003.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지향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정책. 『한국비블리아 학술발표논문집』, 8: 61-77.
- 이창수, 심상순. 2000. 인터넷 기반 전자저널 목록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3): 77-107.
- 이하범. 2003. 저널 수서정책을 위한 전자저널의 평가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 학술발표논문집』, 8: 79-93.
- 정동열. 1999. 전자학술저널의 이용행태 분석에 의한 관리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3): 5-21.
- 정준민. 2001. 전자저널 개발모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3): 203-218.
- 조현주, 안계성. 2000. E-book 활성화방안.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 193-196.
- 최원태. 2001.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 및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2): 23-40.
- Curtis, Donnelyn, Virginia M. Scheschy, and Adolfo R. Tarango. 2000.

- Developing and Managing Electronic Journal Collection : A How-to-do-it Manual for Librarian.* New York / Neal-Schuman Publishers, Inc.,
- Hall, Barnara. 1997. Management and Integration of Electronic Journals into the Serials Department. *Advances in Serials Management*, 6 : 21-53.
- Nisonger, Thomas E. 1996. Collection Management Issues for Electronic Journal. *IFLA Journal*, 22(3) : 233-239.
- Rich, Linda A. and Julie L. Rabine. 2001. The Changing Access to Electronic Journals : A Suevey of Academic Library Websites Revisited. *Serials Review*, 27(3-4) : 1-16.